

울산 남구 새미골 문화마당 시니어 낭독극 프로그램
「빛나는 고래마을 극장」 수강생 모집
-5월 19일 개강... 울산 지역 시니어 누구나 참여 가능

울산 남구 새미골 문화마당(고래문화재단 운영, 이사장 서동욱)에서 울산 장생포 지역을 중심으로 시니어들의 삶의 이야기를 무대에 담아내는 특별한 낭독극 프로그램 '빛나는 고래마을 극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예술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8일(일)까지이며, 개강은 오는 5월 19일(월) 오전 10시 새미골 문화마당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시니어 세대(50대~70대) 10명으로 장생포 주민을 비롯한 울산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창작 낭독극 형식으로, 참여자 각자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사, 제스처, 움직임 등을 결합한 입체 낭독극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다. 총 40회차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현직 배우로 활동중인 박규남 강사의 지도와 함께 연습을 거쳐 실제 무대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단순한 연기 수업을 넘어,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력 향상, 사회적 유대감 형성, 정서적 치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예술창작촌 관계자는 "문화예술 활동이 소외되기 쉬운 시니어 세대에 게 이번 프로그램이 새로운 활력과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생포가 주민 주도형 마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빛나는 고래마을 극장'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울산 시민 누구나 자신

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고 삶을 무대 위에서 재조명해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문의는 새미골 문화마당(☎052-226-9672)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 052-276-967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
